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5 1981년9월2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September 2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4 1981

제6회 사진촬영대회

〈특 선〉「적 막」

박 응 렬

제6회 사진대회 시상식
특선 : 박응렬작 "적막"
나이아가라 웅장미 재현

사진미술을 통해 정서순화면에서 교포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아마추어사진 촬영대회가 제6회를 마쳐, 그 마무리인 시상식이 지난 주말(19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거행됐다. 사진협회(회장 이인덕)·본사 공동주최로 실시된 이날 시상식은 약 70명의 교포·회원이 참석, 칵테일파티를 겸해 열렸다. 지난 6월6일 작년과 같이 나이아가라지역으로 원정, 1박2일의 일정으로 장관을 이룬 자연미를 렌즈에 담은 제6회 대회에서 프린트, 슬라이드 작품 20여명의 70여편이 출품된 중, 아래와 같이 입상자의 결정을 보았다. 대회규정상 입상작 발표는 심사가 끝났어도 비밀에 붙여지고, 시상당일 현장에서 발표와 더불어 시상하는 스릴이 지켜지고 있다.

박세도 총무 사회로 열린 이날 시상식은 김명규 본사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인덕 회장의 심사경위발표후 시상에 들어가 아래 인사들이 트로피와 부상을 탔다.

특선 :「적막」(박응렬)
1등 :「나이아가라 야경」(원용설)
2등 :「나이아가라·다운」(김형찬)
3등 :「광」(임윤재)
가작 :「격랑」(정효생)
〃 :「환희」(이상휘)
〃 :「매표소」(이강헌)
장려상 :「자연의 힘」(이회진)

최고영예를 안은 박응렬씨는 34년 경기도 포천생으로 76년 캐나다 이민. Dress Crest Emblen Co. 근무. 사진경력은 학생시절부터 취미로 시작했으나 출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3작품을 응모했다.

작품 「매표소」로 가작에 입상한 이강헌씨는 70고령도 불구, 14작품을 출품하는 정력을 과시. 모 일본신문사에 근무하는 틈틈이 카메라 여럿을 메고 알맞는 피사체를 찾아 돌아다니기를 즐겨하여 "자연의 사냥꾼"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심사과정에서 최종결정 심사위원 5명의 결정투표로 최다득표했으나 현직회장의 딸인 관계로 장려상에 머문 이회진양(18세)의 「자연의 힘」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힘찬 낙하를 실감있게 표출하고 있다.

이회진양은 1[illegible] 부친(이인덕씨)이 사준 카메라(Nikon Komat)로 친구들과 함께 작품구성을 했고, 이 작품은 나이아가라폭포 바로 앞까지 유람선으로 접근, 구경하다가 문득 구상이 떠올라, 폭포를 옆에서 찍은 것이라 한다.(심사평 2면)

솔라즈의원의 북한방문 보고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김일성과의 대화

남북한 본단관계와 디-북한 절연관계를 지속시켜온 주요 잇슈를 둘러싸고 가까운 장래에 극적인 타결을 기대할수는 없다고 최근한 의회보고서에서 밝혀졌다.

30여년간의 미-북한 단교상태에서 작년 7월에 미국 의회 인사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던 스테펜 J.솔라즈 하원의원(외교분과위 아시아·태평양 소분과위원장)이 6월1일 외교분과 위원회(위원장 클레멘트 자블로키)에 제출한 보고서가 8월에 연방정부 출판국에서 발행됐다.

본지가 입수한 12페이지의 보고서는 서론,남북한 대화의 내력,김일성 및 북한 지도자와의 대화,정책건의등으로 돼 있다.

솔라즈 의원은 시아누크의 주선으로 국무성과 협의한후 북한 초청에 응했으며 먼저 서울에 들러 한국 지도자들과 상의한후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자기의 보고서는 4일간의 북한 방문중 김일성과 4시간,김영남(노동당 중앙위 국제부장)과 9시간 만난 대화를 기초로 한 것이며 자기의 견해가 의회외교분과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김일성면담과 정책건의부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분단은 역사에 대한 죄악" 이라고 할만큼 북한은 진지하지만 그 시작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에 남한과 상충된다. 저들은 남한이 계속적 분단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의 진정한 비무장화 또는 유엔 동시가입 같은 긴장완화 방안이 분단을 영속화시킬 것이라고 염려한다.

긴장완화의 시작으로 남한측은 가족상봉,문화·체육·경제 교류같은 것으로 상호 신뢰감 확립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측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김일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군 감축을 주장했다. 김일성은 군비 부담으로 양쪽의 경제성장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장기 분단된 정치,경제,사회 제도가 가까운 장래에 융합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김일성은 다시 과도적인 고려 연방제를 내세웠다. 김일성이나 김영남은 완전 통일후 어떤 제도가 우세하게 될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분명히 북한 제도가 더 좋다는 시사를 했다. 김일성은 연방제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가면서 통일을 이룰 다른 계획도 생각할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철수·한국 정권교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
연방제거쳐 북한제도 우월한 통일체재구상

김일성은 무력 통일설을 완강히 부인하고 통일은 군사적이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의심받을 것을 생각하고 김일성은 60년 이승만정부의 실권,79년 박정권을 위협한 부산과 대구사태,80년5월 광주사태때 북한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자기들의 평화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주한 미군과 방위조약 없이도 남한이 북한보다 저력이 강하다고 말하고 북한은 외국 군사원조를 안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왜 북한이 군대를 강화하고 간첩을 남파하며 휴전선에 땅굴을 팠느냐는 질문에 김일성은 "간첩남파와 땅굴 사실을 부인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안믿을 것이다.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들은 안 믿을 것이다. 당신들이 침략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안믿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계속 의심하면 끝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이 통일의 주요 방해물이라고 본다. 미군은 남침을 막을 뿐 아니라 기존 한국정부를 뒷받침하므로 미군이 철수하면 국민에의한 새정부가 들어서고 통일에 더 호의적으로 된다고 김일성은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미군과 평화조약을 바라고 그것을 체결하면 철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일성은 또한 미,남북한 삼자회담을 배격한다고 재확언했다. 남한 대표를 회담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정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단지 한국 대표가 업저버로 참석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수립되면 그때는 3자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장차에도 한국정부가 탄압정부냐 아니냐는 것은 김일성 자신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일성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면서도 중공이나 소련이 남한과 관계를 갖는 것은 고려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남북한 각편의 동맹국들이 남북한을 상호인정한다는 미국측 제안을 김일성은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단일 한국이 아닌 두개의 한국 상태를 영속화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엔 동시가입도 현재의 분단 상태를 영속화한다는 이유로 김영남은 반대했다(계속)

부흥회·안수식
중앙·웨슬레·동부·성도

토론토 중앙장로교회(목사 정관일)는 10월1일(금)부터 4일간 LA제일장로교회 담임 최현우목사를 강사로 초청,심령부흥회를연다.

목,금,토,3일은 하오 7시 30분부터,주일은 상오 5시 30분과 하오1시,하오 7시 30분집회를 가진다.

한편 웨슬레감리교회(목사 여웅순 2385 워든 애비뉴 스카보로)는 9월26일(토)부터 28일까지 강달희 목사를 강사로 초청,심령부흥회를 연다. 25일은 하오 7시30분, 26일은 상오5시30분, 11시, 하오7시30분, 27일(일)상오5시30분, 하오1시30분, 7시30분, 28일은 상오5시30분, 하오7시30분에 각각 집회가있다.

토론토동부장로교회 (목사 홍순관)는 22일(화)하오7시30분 민영기 목사후보생의 안수식이 있다.

성도교회(목사 김용진)는 산호세한인교회 담임김석규 목사를 초청,「내 영혼을 살찌게 하자」(시편23) 주제의 부흥사경회를 실시한다.

10월9일(금)하오7시30분, 11일 상오6시30분, 하오1시30분, 8시, 12일 상오6시30분, 10시30분, 하오7시30분, 새벽기도, 전도집회, 성경공부등이 있다.

노년단풍놀이
다우샌드섬 1일관광

토론토 한국노년회(회장 정인기)의 연례 단풍놀이가 올해는 10월3일(토) 다우샌드·아일랜드 관광으로 열린다. 아침8시 출발 하오9시 돌아오는 이 1일 관광 회비는 18달러이다. (연락처 노년회 755-8079)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심 령 부 흥 회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읍니까? 와 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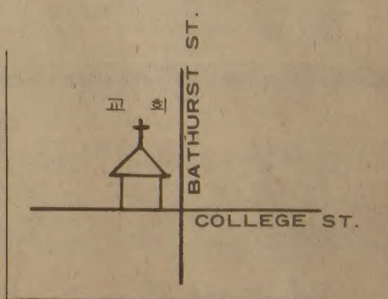
강 사 : 최 헌 우 목사

최헌우 목사님은 L.A.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척한지 5년만에 급성장한 교회로 부흥시킨 능력의 종, 신유의 종으로 현재 400명 교인이 모이는 (72만달러짜리교회 구입)교회를 이끄는 성공적인 목회자이며 부흥사이십니다. 많이 오셔서 최목사님의 능력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영육간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력소개 :
- 총회 신학대학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 10월 1일(목)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일(금) 오후7시30분(〃)
3일(토) 〃 (〃)
4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중앙장로교회



전화연락 :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SSW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블루제이스 3연승
최동원선수 스카웃문제
병역문제가 관건

후기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전적.

	승	패	승률	게임차
Detroit	24	16	.600	—
Milwaukee	24	17	.585	½
Boston	23	16	.590	½
Baltimore	21	17	.553	2
New York	21	17	.553	2
Toronto	19	18	.514	3½
Cleveland	18	22	.450	6

만년하위 블루제이스가 아메리칸리그 결승전에 나가는것이 꿈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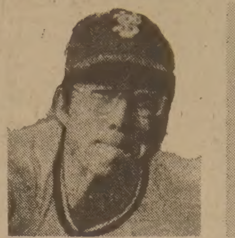
또 창단된지 5년된 블루제이 유니폼을입은 한국선수들을 보게될지도 모른다.

지난 18일부터 엑시비션스타디엄에서 캘리포니아·엔젤스와 3연전을 치른 블루제이스는 5:1, 6:4, 6:3으로 연타 19승18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6 위로 1위 디트로이트와의 간격을 3게임 반차로 줄이고선 두경쟁에 나섰다.

이미 본지가 보도한대로 블루제이스의 최동원선수 스카웃문제는 거의 결정됐으나 최선수의 병역문제만이 관건으로 남은것 같다.

지난 19일 엑시비션·스타디엄에서 본 기자와 만난 블루제이스 피터·바바시 사장은 "최동원의 얘기는 스카웃터 웨인·몰간을 통해 잘 알고있다"면서"병역문제가 있다는데 2,3 일내에 결정해서 최선수와 접촉하겠다"고 말 했다.

이날 엔젤스와 블루제이스 게임도중 기자실에 들른 엘리옷트·웨일 인사부장은 본기자가 금년도 최선수 성적등을 보여주자 "정말로 우리가 뽑고싶은 선수다"면서"지난번 에드몬턴에서 최선수는 그전날 한게임을 완투하고 벤치에 앉았다가 한국팀이 위기에 몰리자 워밍·엎도 없이 그대로 등단해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상할수없는 괴력이다"라고 감탄을 연발했다.


◇최동원 투수

◇블루제이 사장 피터·바바시

최동원선수는 금년초 연세대를 졸업, 롯데에 스카웃된후 한국실업야구 전기리그에서 13승1패를 거두어 한국에 독보적 투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선수는 아직도 병역의무를 필하지 못했다.

19일 본사와 통화한 일간스포츠의 양삼기자는"최선수의 병역문제는 지금국회에 상정중이다. 금년말까지는 우수선수의 병역면제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블루제이스는 21-23일까지 오클랜드팀 과의 3연전을 마지막으로 홈게임을 끝내고 어웨이게임(A-way-game)에서 7전을 더 벌이게 된다.

금년도 프로야구대전은 선수들의 파업으로 전·후기로 나누어져 양리그의승자가 각조 우승을놓고 10월초에 대결한다. 전기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승자는 뉴욕 양키스가 차지한바있다.

노력만이 英語극복의 길
언어심리학 박창진博士의 도움말 ㊤

짧은 文章을 외워 發音연결 익숙해질것
失手할까 두려워하는 態度를 버려야 해

〈시카고지사〉 약30년간에 걸쳐 언어심리학을 연구해온 박창진 박사를 만나 교포들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도움말을 들어보았다.

서울대, 이화여대와 서독, 스위스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3년전 미국으로 온 박교수는 이민당사자들이 영어에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 언어문제를 극복할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말하고『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변명만큼 열심히들 노력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몇번씩 강조했다.

기본적인 언어를 익히는데는 지능의 차이가 없으며 노력이나 끈기가 주작용을 하기 때문에 쉬지않고 영어를 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어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영어를 배우는 실천력의 밑거름으로 삼을때 말이 안통하는 벙어리 미국생활의 좌절을 이겨낼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인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략 몇살 정도때 미국오는것이 언어문제를 큰불편없이 해결할수 있는 고비점인가?

▲몇살때 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는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결론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된 의견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데 불리한 조건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는 점이다.

말을 배우려고하면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리를 배워야 한다.

영어에는 한국말에 없는 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탁음을 잘내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졌을때 불리한 것은 바로 이 발음 문제이다. 한국말 발음이 완전히 습관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배울때 여간한 노력을 하지않고는 발음을 그대로 배울수가 없다. 이점에서 볼때는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불리하다고 할수있다.

◇발음이나 소리를 배우는 것이 어느정도 용이하다고 할수있는 나이는 몇살인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수가 없다.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몇살때 부터 몇살때까지가 소리를 쉽게낼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소리문제를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영어에서는 인토네이션이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인토네이션은 문장속에서만 역할을 하지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문제가 안된다.

영어를 배울때는 단어 하나만을 배우려고 하면 효과가 없다.

중요한것은 영어를 눈으로 배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를 내서 소리를 배우는 훈련을 되풀이 해야한다.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성격적으로 소리흉내를 잘내는 사람일수록 영어를 빨리 배울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할수가 없다. 말이란 것에는 적어도 3가지 기본적인 요인이 있다. 하나는 소리, 하나는 뜻, 다른하나는 말마디와 말마디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흉내를 잘내는 사람은 소리는 잘배울지 모르지겠지만 소리를 잘 배운다고해서 말마디와 뜻까지 잘배울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하는데 있어서는 소리 흉내를 잘내는 사람이 빨리 배울수 있다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소리흉내를 잘내는 사람이 말을 빨리 배울수 있지만 말도 의사소통 방법이니 만큼 소리 흉내만 가지고는 안된다. 어느 단계에가서는 어휘능력을 증가시키고, 풍부하게 하기위해 독서가 필요하다.

◇교포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영어신문을 못읽는다든가 독서를 못한다는것 보다는 기본적인 회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는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느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 경우 책은 잘읽고 글도 어느정도 쓰지만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예가 많다. 심지어 대학교수들도 영어실력은 많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올바르게 발음할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이 바르게 발음을 하지 못하다보니 남이 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단어를 외우는 일 부터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

귀와 입으로 배우려는 努力만이 關鍵
美國사람 접촉機會 없으면 TV라도

그러나 단어는 단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장속에서 발음이 바뀌질수가 있고 액센트도 달라질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1년만 되면 말을 제잘하는데 어른들은 몇년이돼도 말을 못하는 예가 허다하지 않는가.

▲어른들은 보통 그렇게 말한다. 영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된다고 한다. 실제로 그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것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 말로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빠르게 영어를 습득한다고 하는것은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것 보다 아이들은 자기가 영어를 못해도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내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내가 말을 하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말을 배우기는 어렵다.

◇성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빨리 배울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렇게 볼수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다른 미국 아이들과 어울려서 말을 해야 영어를 빨리 배울수 있다. 한국인들이 모여 살다보면 영어를 배울수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사람을 만날기회가 없으면 TV라도 보면서 영어를 익혀야 한다.

◇소리를 흉내 내는것은 청각 기능과도 관계가 있을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각기능이 쇠퇴하는 경향은 없는가.

▲나이가 50~60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둔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30~40대 까지는 영향이 없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 얘기가 어느정도 근거 있는가?

▲현재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빨리 회화를 익힌다고 볼수 있잖은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모방이나 흉내를 잘내는 것과 유관하다고 볼수 없는가?

▲학문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내생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대인접촉을 쉽게 하고 많이 하기때문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이민왔을때 어떻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라고 충고하겠는가?

▲우선 짧은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것을 연습하면서 외우는것이 좋다. 영어의 소리연결에 익숙해져야 한다.

익숙해지는데 있어서는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들 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한국말 발성법을 벗어나 영어발음 습관을 배우는 것이 쉬운것은 아니다. 말을 조용히 입을 다물고 배우는 것은 힘들다. 개인지도나 영어강습소등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배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귀와 입으로 배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계속〉

◇개조심이 아니라 사자조심—미네소타주의 리틀 시카고의 어떤 빈집을 지키고 있는이 동물은 개가 아니라 3살짜리 사자이다.

심사평 이인덕

금번 제6회 촬영대회를 작년과 같이 나이아가라폴에서 갖게된 것은, 지난해 만족할만한 수확을 얻지 못한데 대한 욕심에서 위대한 대자연에 재도전을 시도해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몇점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별 다른바가 없다고 할 때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통감케 한다.

광역의 대자연을 통째 삼키려는 작가들의 욕심도 욕심이려니와 그보다는 웅장한 자연에 위축되어 혼미해진 탓인지, 대부분의 작품이 초점을 잃은양 테마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없는 작품이란 생명력이 없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기차를 타고 원정촬영하는 그 열의는 정서생활을 추구하는 교민사회의 새로운 장(章)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특 선〉「적막」

뀌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듯 고요한 밤 풍경에 고독한 여인이 즐겨 찾는 듯한 곳….

적막을 주제로한 시적인 작품이다.

평행선 구도에 안정감과 단 하나의 우뚝 솟은 가로등은 적막의 향기를 뿜는듯, 주제를 더한층 강조해 주고 있다.

또한 액센트가 되는 주제인 가로등의 위치는 이 사진의 화면을 이상적으로 다듬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선으로의 발돋움은 심야(深夜)에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는 작가의 노력의 결정이라 하겠다.

◇제6회 사진대회 입상자들: 앞줄·좌로부터 원용설·박용렬·김형찬·임윤재, 뒷줄·좌로부터 정효생·이회진·이강현 제씨)

결 혼 축 하

신랑: 김상진씨차남신범군
신부: 황순일씨동생순자양
때: 9월26일(토) 정오
장소: 한인교회(358 Sherbourne)
주례: 강인병 목사

교 민 동 정

◆유현승(중앙도서관 분류과장)=이곳 백인사회에 한국민속을 심는일을 작년부터 실시, 추석윷놀이를스카보로도서관에서 제2회행사를 19일 치렀다.

한국문화영화, 고전무용감상후 한인과 백인이 어울려 윷놀이와 한국음식 시식을 즐겼다.

◆김창열(한인YMCA총무)=토론토한인사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사업, 문화사업을 실시하기로 유명하다. 요즈음도 스카보로지역 추석윷놀이행사를거들라,와이즈[illegible]럽 일과 한인Y합창단 일을 거들라, 토론토한글학교 및 웨스톤 Y학교 개강준비, 단풍관광, 마련등 하루가 48시간이기를 바라는실정.

◆김정숙(TV한국아나운서) = 매주 3번 나가는 TV프로제작및 아나운서일로 바쁜 틈틈이 전공인 고전무용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한인YMCA무용부를 맡아 20 여명 소녀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인구억제책 강구
3명이상의 자녀에 중과세

(서울19일=연합)한국정부는 자녀를 3이상둔 가족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등 인구조절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자녀셋 이상을둔 가구에대해 세금 차별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직업여성들에게는 2회에 한해 출산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의료보험 혜택을제한하는 |안이 포함됐다.

보건사회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가임여성인구(연령 15~44)는 70년의 6백6십만에서 75년 7백7십9만 으로 증가했고, 81년에는 9백2십5만이 됐다.

현재 한국의 인구증가율 1.79%가 지속된다면 현재 3천8백만의 인구는 90년에는 5천백만이 된다.

한국은 6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수준(1%미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중 프랑스와같은 나라는 인구증가정지상태(0%증가)에 머무르고있어 인구증가 장려책으로 자녀를 많이갖는 가정에 보금을 지불하는등 한국의인구억제 정책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TV한국 시간변경
10월부터 주2회 방영

토론토한인회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TV한국」은MTV(채널47)로 현재 목요일낮(12~12시30분)과금요일밤(11~11시30분)및 일요일 밤까지 매주3회 방영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는 로저스·케이블TV(채널28)로 매주 2회, 화요일밤 10시30분~11시, 금요일저녁 7시30분~8시로 방영시간이 변경된다.

현재 TV한국은 김정숙양이 프로듀서와 아나운서를 겸하고 있다.

한맘노년회
푸짐한 음악잔치

토론토한인천주교회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주일고마태오신부 본명축일겸 생일축하잔치를 성대히 차렸다.

지난 20일 던다스성당강당에서 열린이 축하식에는 노인회원및 교회유지등 약 200명이 각자 집에서 1가지 이상 차려온 음식과 회가 마련한 음식등으로 푸짐한 잔치상을 이루었고, 찬조출연으로 첼로 연경희, 피아노 김진숙, 바이얼린 송영철의 실내악 트리오가 이채를 띄었으며, 이·레오나드등 교포신학생 4 명의 아코디언 반주에의한 4중창도 흥을 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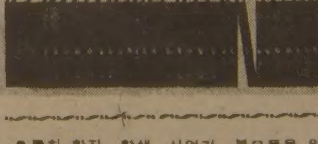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99이상 •중고품: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363-6077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536-9082(B), 245-7522(R)

英연극계 외설 是非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영국에서 연극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연출자가 성범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연극계를 포함한 예술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권위있는 런던의 국립극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연되고 있는 연극「영국에서의 로마인」의 연출자 미카엘·보그다노프씨(42)가 7일 런던의 중앙형사재판소에 의해『무대에서 배우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입건됐다.

공연 개막때부터 외설시비로 논쟁을 일으켰던 이 연극은 호모섹스 강간을 무대위에서 재현하는등 노골적이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행위로 시비가 되어왔었다.

연극테마는 1세기때 로마인에 의한 영국침략과 오늘날 영국군과 북아일랜드와의 반목을 비교, 식민지주의를 힐난한 것.

보그다노프씨는 메리·화이트하우스라는 한 반포르노운동가에 의해 고발되어 성범죄법이 적용, 입건됐는데 영국에서의 연극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지난68년 폐기되었다.

보그다노프의 입건을 둘러싸고 연극계는 폐기된 검열법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항의를 하고있다.

관객은 환호…連日 초만원
호모 섹스등 무대에 再現

국립극장 한 책임자는『특수한 케이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모순이며 엉터리』라고 흥분하는 반면 그를 고발한 화이트하우스여사는『당연한 법적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극이 시작되자 런던시의회는 법적 뒤집혀 공연을 하게한 국립극장의 예산심의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인상해주던 보조금의 인상을 중지키로 결정, 지난해 지원규모인 63만파운드(미화1백22만달러)선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했다.

이 연극의 제작비는 30만파운드(미화58만달러).

이러한 비난과 논쟁이 격렬한 것과는 상관없이 관객은 환호, 저녁공연에는 1천2백 관람석이 만원을 이루었다.

이브닝·뉴스지는『연극이 개막되자 여섯사람의 벌거벗은 남자가 쌍소리를 지껄이며 날뛰고 남색이-』라며 혹평을 싣기도 했다.

공연중에 어떤 관객은 배우들을 향해 딱총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달걀을 집어던지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씌우는등의 항의를 하기도 했다.

영국에 있어서 연극이 음란논란을 받게된 것은 70년대「오! 캘커타」가 히트를 하면서부터다.

아뭏든 보그다노프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상 6개월의 징역형과 1천파운드(미화2천달러)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통일자문위원들에 위촉장·배지 전달

지난 6월5일자 전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중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 6명에 대한 위촉장·배지 전달식이 지난 21일 총영사관에서 이 총영사에 의해 거행됐다.

토론토의 박부용(본사식자부장)·최충식(CN 근무), 런던의 정일송(전 한인회장)·오유석, 해밀턴의 조성학·장근원씨의 6위원중 정씨는 모국에 가서 직접 위촉장을 받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날 전달받았다(오유석씨는 근무관계로 불참).

◇토론토지역 통일자문위위촉장 전달의 날(왼쪽부터 박부용·최충식·이총영사·조성학·장근원·박부총영사)

암정체 밝혀질듯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유전인자의 분리에 성공함으로써 암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가능해 질것같다.

콜드 스프링 하버연구소팀은 매년 15만명이상이 목숨을 잃는 결장암 및 폐암에서 공통적인 유전인자를 발견하고 방광암에 작용하는 유전인자를 열흘전에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MIT와 시드니 하버 암연구소팀도 암세포분리에 성공함으로써 암의 정체파악의 길이 열리게 됐는데, 콜드 스프링 하버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위글러박사는 다른 연구소팀과 공동으로 폐, 유방,결장,방광에 감염된 수많은 암세포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암정체파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미암협회(CAS)부회장 프랭크 라우처박사가 논평했다.

교포소녀들 음악대회서 금메달 2, 은메달 2

지난 3, 4일 2일간 걸쳐 CNE에서 개최된 실라버스 음악대회에서 교포소녀 그레이스·김(12세 김희학씨 장녀)양과 한선아(9세 한장항씨 3녀)양이 시니어부(18살 이하)와 주니어부(12살 이하)에서 각각 금메달을 탔다.

이 두 소녀들은 5일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 개최된 음악장학생선발대회 에서도 동부문 1위를차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또 그레이스·김양의 동생 엘리자베스(10)도 바이얼린 주니어부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 박영효씨장녀 쥬리양(11)도 주니어부에 은메달을 땄다.

프랑스 내각 단두대 폐지안 통과

프랑스내각은 2백년동안 계속된 단두대 처형을 종식시키는 사형집행폐지안을 26일 통과시키고 오는 9월 17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동법안통과는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⑥③

팔리·모왓 원작, 천재훈 옮김

우리들은 다시 실탄이생겼고, 그동안 모든것이 순조로웠지만 작년겨울 백인은 다시 이땅에서 철수해 버렸고, 다시 그동안 잡아놓은 여우가죽 이외에는먹을것이 전혀 없었읍니다.

어째서 당신들 백인들은 잠시동안 와서머물다가 우리가 당신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때는 없어져버리는지요?

무역자들이 우리에게 가리켜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여우가죽을갖고가서 실탄과 바꿔올수없는지요? 이 수수께끼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실탄이 없으면겨울에먹을 고기가 캠프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텍 레이크에서 살던 쿠니와 아노틸릭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겨울의 사정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이미들어 알고있지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무역자들이 소문에 듣고 그들을찾아 동쪽으로 떠난 세가족의 이야기는 아직듣지 못했을 겁니다.

오텍레이크에 네사람 의 사냥꾼이 그들의 가족과함께 살았지요. 앙그레얄락, 그외부인 늙은어머니 그리고 어린애들인 파마, 쿠니 아노틸릭이 한식구 였읍니다. 오텍은 임신중인 부인 하우믹과 아직 아마웃(파카)속에 젖을 떼지않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살았지요.

오울릭툭은 부인과 그의 어머니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다음은 나자신 이었는데 내부인 나눅 엘라이트투나라고 불리던 나의아버지 그리고 내부인의 죽은 전남편 한테서 난 알주트, 엘라이트트나등 사내아이들이 함께 살았지요.

내가 애기하는것은 그겨울의 마지막 몇달동안의일이었는데 오텍과 앙그레얄락은 우리 네가족이 갖고 있었던 개들을 모두 데리고 프란쯔한테 도움을 청하러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그들이 떠난후에 나혼자서 프란쯔가 가을에 여우사냥감으로 잡아놓았던 사슴고기를 찾으러 눈이덮인 평원으로 나가 봤읍니다.

눈이 덮여서 나는간신히 한마리밖에 찾을수가 없었으며, 그것도 오소리가 다 먹고 가죽까지 썩어놓은뒤였읍니다

내가 빈손으로 바렌에서 돌아오자 오텍과 앙그레얄락이 남쪽에서 돌아온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들은 프란쯔가 우리들에게 줄 양식이 거의 없다고 하드라고 들려 주더군요. 그때나는 앞으로 몇주일 까지는 사슴이 우리가 살고있는데까지 도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매우 걱정이되더군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기도 했지만 아직 개들이 썰매를 끌수 있을때까지는 산비탈로 나가 사냥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사냥을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읍니다.

그러자 개들이 굶어서하나 둘 죽어갔고, 우리도 평원으로 나갈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사사냥감이 전혀 없기도했지만 있었드래도 실탄이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읍니다.

하루 저녁은 앙그레얄락의 늙은 어머니가 이글루에서 빠져나가 아침까지돌아오지 않았다는것을 들었고 우리는 조상을 가야 했었지요.

앙그레얄락의 이글루에 갔다 온 아내는 그의 부인도 폐속에 들어있는 귀신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드군요. 죽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들의 이글루안에 엘라이투트나는 그의 할아버지처럼꼼짝도않고 앉아서 내가 이글루를 나가고 들어갈때전혀 말도걸지 않았읍니다.

어린 알주트는 아직도뭔기가 남아서 혹시 먹을것이 붙어있을까 해서 버려둔 뼈를 눈속에서 파낼때 나를 도와 주었지요. 나눅은 아이들 생명을 위해서 매우 절망적이되자 나의아버지를 죽여서 아이들과 우리들의 굶주린 창자를채우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속삭였지요. 나는 그녀의 계획에 전혀 동의할수가 없었읍니다.

엘라이투트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지난날 우리가족과 나에게 정성을다해도와주었지요. 그러나 나눅은 여자였기에 더욱 필사적이었고 침상위에 높이 눈을 딱감고 앉아있는 노인한테 직접가서 귀에대고 말했답니다.

엘라이투트나는 그녀가 애기할때 눈을뜨지 않았고, 한참동안은 내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혀 듣지못한것 같았읍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천천히 고개를끄덕이며 동의 했읍니다(계속)

— 정 정 —

현지판「한국일보-토론토」9월21일자(제624호)와 같이 발행된 한국판「한국일보」제10120호는 발행날자가 14일이 아니라 21일자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주간女性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이 광고를 갖고 오시는 분에게는
10% 감해 드립니다.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특별집회
강 사 : 문 동 환박사
시 간 : 1981년9월27일
(4시30분)
장 소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INE
AVE.)
임마누엘
연합교회
남신우회

교 육 전 도 사
청 빙 공 고
본 요한 웨슬레 자유감리교회에서는
여자전도사를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4년제 정규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 졸업자
교 역 : 2년이상 유경험자
교 단 : 전도사 증명소지자
한국어및 영어에 능한자
연 령 : 30세 이상
대 우 : 년 만달러
연락처 : WESLEY CHAPLE
주 소 : 2385 WARDEN AVE. SCARBORO. ONT.
전화번호 : (416) 444-8343
요한 웨슬레 자유
감리 교회

1981—2 학년도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생모집안내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1981-2년 학년도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수업기간 : 1981년 10월3일~1982년6월19일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장 소 : 퀸·에리자베스 시니어 퍼브릭스쿨
(60 Service Rd. South Missisa.)
자 격 : 1) 유치반이상 8학년까지
2) 특수 교육반(9학년~12학년)
수업과목 : 한국어, 미술, 음악
특 수 반 : 고학년을 위한 영어교육반(미시사 교육청이 파견하는 영어교사가 지도예정)
합 창 반 : 미시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설코 단원을 모집중.
수 업 료 : 학생1명 39달러, 2명이상 78달러
연 락 처 : 문 가 자(828-6212)
유 정 숙(277-2394)
미시사가 한글학교 교장
문 가 자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정원사 HELPER구함 : 연령제한 무
풀타임 또는 파타임
☎ : 653-8173 MR. 강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GAS ATTENDANT : ☎ : 782-6311

가게일 도우실 젊은 남자분 :
주6일 근무(월, 수, 목, 금, 토, 일)
Long Hours (AM9시30분~10 : 30PM)
주급 : 380달러(STARTING PAY)
☎ : 532-2961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웨이트레스 구함 :
풀타임과 주말 파타임
☎ : 757-6334

쥬스바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5시 이후 연락바람
☎ : 438-0403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경험있는 헬퍼구함 :
일요일만 근무
☎ : 690-4512 75 EASTDALE AVE.

도나스 샵에서 일하실 풀타임
키친 헬퍼 구함(여자분에 한함).
☎ : 481-3677 미세스 박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돈밀과 에그린톤지역
☎ : 425-6068

매매및 양도

바쁜 프라자내 CONVENIENCE스토아 : 주매상 : $6300
보증. 리스 : 5년. 아스킹 : $59,000. 이상적인 패밀리 Operation
☎ : 766-9968 3437 st. Clair Av. E. 와 Birchmount
HELLENIC REALTY LTD. REALTOR

버라이어티 급매 : 가게 처음하시는 분에게 호 조건임
ASKING : $10,000+스탁(물개지가능)
2727 LAKESHORE BLVD. W.

절 호 의 찬 스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십니까. 카페테리아식 고급 레스토랑으로 낭만적 분위기이며 좋은 비지네스 입니다. 미시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매상 4천달러이며 매상은 급상중. 년간 8만달러 수입. 주 5½DAY OPEN

☎ : 270-0679

세 탁 소 급 매
☎ : 653-6336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6107 YONGE ST.
☎ : 223-7278 JOHN.

좋은지역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사실 절호의 기회. 6년계약 싼 렌트. 아파트살림집 포함.
☎ : 654-4410. 635-8405 MR. 리타 리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0463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성업중인 픽 · 업 세탁소 팝니다 :
2687 EGLINTON AVE. W. (KEELE근처)
☎ : 656-4727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스토아급매 :
주매상 4000달러
☎ : 270-1371

건물및 비지네스 매매 : 주매상 6500달러이상
스토아 매매 : 4200달러이상
☎ : 535-7200 MR. 김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올게지 : 13½%(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COUNTRY STYLE 도나스샵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PH
☎ : 707-743-3152 MR. 유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집 · 방세 · 하숙

아파트 서브렛 : 렌트 $259
입주 10월1일 LAKESHORE와 MIMICO
☎ : 252-8823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구 혼

28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여성원함 관광방문녀도 무방함
MR. 강 일 영
1015 ROOSEVELT RD. #303 MISSI.ONT.L5G3Y7

재색과 학력 겸비한 29세 미혼여성 중매
유럽에서 고교와 대학졸업. 현재 간호학과 졸업반
(이민자녀)
30~45세 사이의 학력있는 분의 연락바람
연락처 : T. CHOI 1355 SO. HOPE ST. #311
L. A., CA. 90015 U. S. A.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간 판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기 타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디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쏘메쎄리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악 기 점

조율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수리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 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本社特約 連載漫畫 블론디 딘 · 영 作

"여보, 이것좀봐… 내가 엘모에게 롤러스케이트 타는법을 가르쳐줬다구!" 휘익 꽈다당 "다음주엔 저녀석에게 멈추는법을 가르쳐줄거야"

533-2361 구독신청은

서울大등 33個大 系列·學科혼합
高大등 54個大 완전學科別모집

全綜合大 3志望허용
2志望허용 35、前期 61個大

內申반영 30~50%線
문교부 82學年度 大入요강確定발표

문교부는 17일 전국 89개대학의 82학년도 대학별 신입생모집요강을 확정발표했다. 각 대학의 전형요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해까지의 계열별모집을 학과별 모집으로 바꾸었고 복수지망허용수에서는 전기모집인 34개종합대학 모두와 55개단과대학가운데 13개대학이 3지망까지, 35개대학이 제2지망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전·후기별 모집시기는 61개 대학이 전기를, 28개대학이 후기를 택해 81학년도에 비해 전혀변동이 없으며 고교내신성적반영률은 30~50%로 다양했다.

[복수지망수] 서울大, 高麗大, 延世大를 비롯, 34개 종합대학과 13개단과대학등 47개 대학이 제3지망까지 허용, 제3지망을 허용한 대학은 89개 대학중 52.8%에 달했고 35개대학이 제2지망까지 할수있게됐다.

모집단위가 1개학과로 돼있는 가톨릭大, 한국체육대등 7개대학은 복수지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個大는 완전系列

[모집단위] 89개 대학중 단2개단과대학(韓神大·침례신학大)만이 계열별 모집을 택했고 서울大등 33개 대학(37·1%)이 계열및 학과별모집의 혼합모집방법을 택해 학과별모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있다.

高麗大등 54개대학(60·7%)은 완전히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했다.

[내신반영] 고교내신성적 반영비율은 89개 대학중 延世大, 高麗大, 梨花女大, 西江大, 淑明女大, 釜山大, 全北大, 慶熙大등 70개대학이 30%, 忠北大, 효성여대, 釜山工大, 世宗大등 4개대학이 30·6%, 서울大, 慶北大, 朝鮮大, 慶尙大등 9개대학이 32%, 江原大가 33·3%, 忠南大 34·6%, 濟州師大, 大建神大, 明知大 40%, 三育大 50%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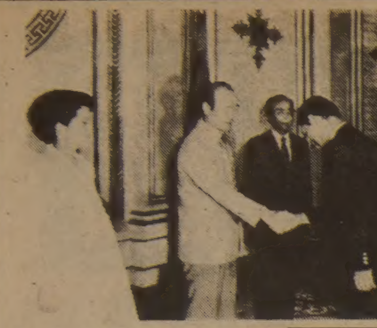
한편 예·체능계는 68개대상대학중 59개대학이 실기고사성적을 30%이상, 55%(弘益大) 또는 60%(한국체육대)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13개대학만이 30%미만인 9·3%까지 반영키로했다.

[전·후기구분] 89개대학중 68·5%인 61개 대학이 전기를, 31·5%인 28개대학이 후기를 택했고 특히 종합대학은 내년에 승격되는 慶南大, 濟州大, 誠信女大를 포함 37개대학이 모두 전기다. 후기중 종합대는 내년 승격되는 韓社大 한곳뿐이다.

대학별 세부사항은 각대학별로 10월중에 발표된다.

◇대학별전형요강

대학별	복허수용회망수	전·후기	일반 학력고사	일반 내신성적	예·체능실기 학력고사	예·체능실기 내신성적	예·체능실기 실기성적
서울대	3	전	68	32	음20 미30	30 30	50 40
江原대	〃	〃	66·7	33·3	42·5	32·5	25
경상대	〃	〃	68	32	50	32	18
경북대	〃	〃	〃	〃	40	30·6	29·4
부산대	〃	〃	70	30	40	30	30
충북대	〃	〃	69·4	30·6	41·5	30·5	28
충남대	〃	〃	65·4	34·6	56·7	30	13·3
전북대	〃	〃	70	30	50	30	20
전남대	〃	〃	〃	〃	40	30	30
고려대	〃	〃	〃	〃	35	30	35
연세대	〃	〃	〃	〃	20	30	50
이화여대	〃	〃	〃	〃	〃	〃	〃
숙명여대	〃	〃	〃	〃	30	30	40
건국대	〃	〃	〃	〃	20	30	50
경희대	〃	〃	〃	〃	〃	〃	〃
계명대	〃	〃	〃	〃	〃	〃	〃
국민대	〃	〃	〃	〃	〃	〃	〃
중앙대	〃	〃	〃	〃	〃	〃	〃
서강대	〃	〃	〃	〃	—	—	—
성대	〃	〃	〃	〃	50	30	20
한국외대	〃	〃	〃	〃	—	—	—
동국대	〃	〃	〃	〃	20	30	50
단국대	〃	〃	〃	〃	44·1	30	25·9
숭전대	〃	〃	〃	〃	20·6	30	49·4
한양대	〃	〃	〃	〃	〃	〃	〃
아주대	〃	〃	〃	〃	—	—	—
동아대	〃	〃	68	32	34	30	36
조선대	〃	〃	〃	〃	20	30	50
인하대	〃	〃	70	30	30	40	30
홍익대	〃	〃	〃	〃	15	30	55
영남대	〃	〃	〃	〃	20	30	50
한국해양	2	〃	68	32	—	—	—
제주대	〃	〃	70	30	35	30	35
군산대	〃	〃	〃	〃	20	30	50
강릉대	3	후	〃	〃	40	30	30
마산대	〃	전	68	32	34	32	34
공주사대	〃	〃	70	30	40	30	30
안동대	2	〃	〃	〃	30	30	40
한국체육대	〃	〃	〃	〃	10	30	60
부산수대	2	〃	〃	〃	—	—	—
서울산업	2	〃	〃	〃	20	30	50
목포대	3	후	〃	〃	21	30	49
명지대	2	〃	60	40	40	40	20
부산산업	〃	전	70	30	20	30	50
호서대	〃	후	〃	〃	20	30	50
동의대	〃	전	68	32	18	32	50
배재대	〃	후	70	30	35	30	35
목원대	〃	전	〃	〃	20·6	30	49·4
효성여대	3	〃	69·4	30·6	25·2	30·4	44·4
청주대	〃	〃	70	30	30·9	30	39·1
원광대	〃	〃	〃	〃	40	30	30
청주사대	〃	후	60	40	20	30	50
동덕여대	2	〃	70	30	〃	〃	〃
상명여대	〃	〃	〃	〃	35	30	35
경남대	〃	전	〃	〃	30	30	40
大邱한의대	—	〃	〃	〃	—	—	—
삼육대	2	〃	50	50	20	30	50
덕성여대	3	후	70	30	35	30	35
大田대	3	〃	〃	〃	—	—	—
광운공대	3	〃	〃	〃	—	—	—
금오공대	2	전	〃	〃	—	—	—
서울여대	3	후	〃	〃	20	30	50
한국항공대	2	전	〃	〃	—	—	—
전주우석대	3	후	〃	〃	—	—	—
인천대	2	후	〃	〃	35	30	35
전주대	〃	〃	〃	〃	20	30	50
경기대	〃	〃	〃	〃	30	30	40
한성대	〃	〃	〃	〃	20	30	50
성심여대	〃	전	〃	〃	34	30	36
인제의대	—	〃	〃	〃	—	—	—
울산공대	3	〃	69·4	30·6	40	30	30
세종대	2	〃	〃	〃	36·2	31·9	31·9
부산여대	3	〃	68	32	20	30	50
관동대	2	후	70	30	30	30	40
국제대	〃	전	〃	〃	—	—	—
순천향대	3	후	〃	〃	—	—	—
한신대	2	〃	〃	〃	—	—	—
장로회신대	〃	〃	〃	〃	20	30	50
상지대	〃	〃	〃	〃	30	30	40
성신여대	〃	전	〃	〃	35	30	35
대건신대	—	전	60	40	—	—	—
그리스도	—	후	70	30	—	—	—
감리교신대	2	전	〃	〃	—	—	—
서울신대	〃	후	〃	〃	30	30	40
한신대	3	〃	〃	〃	—	—	—
침례신대	—	후	〃	〃	—	—	—
총신대	2	〃	〃	〃	30	30	40
가톨릭대	—	전	〃	〃	—	—	—
고신대	2	후	〃	〃	30	30	40



韓日議員聯盟총회 閉幕 共同성명
在日同胞 地位向上노력
"安保經協 지원운동展開"

韓日議員聯盟제9차합동총회는 17일상오 『일본측은 한국의 과중한 防衛費부담으로 인한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對韓經協에 성의를 다해 노력한것을 다짐했으며 양측은 이의 조속한 해결을위해 적극적인 지원운동을 전개키로 했다』는등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뒤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시정을위해 일본側이 일본정부에 개선책을건의키로 약속하고 상호문화교류를 지원하기위해 구체적인 기구의 창설에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원들은 이공동성명에서 ▲소련의군사력증강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北傀의 군사력증강및 도발로 東北亞와 한반도에 위기와 긴장상태가 존속하며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의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측은 全斗煥대통령의 1·12및 6·5提議를 전폭지지하고 北傀이 이를 조속히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이밖에도 ▲한문교류를 위해 양국대학내에 공동연구기관을 설치, 합동전시회등 양국예술가의 정기교환을 한다는데 합의하는한편 ▲일본측은 在日한국인의 법적지위향상에 노력하고 原爆피해자의 치료와 사할린韓國人 송환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키로 합의했다.

에너지節約 有功者 全대통령、49명초치

全斗煥대통령은 17일낮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에너지절약에 공이큰 金舜基씨(한·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생산부 차장)등 49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離任하는 바로 駐韓우간다대사(일본常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어제 全國 50個市서 일제히 夜間 民防衛
첫歸家훈련… 일찍撤市

9월민방위의날 훈련이 17일하오 서울과 지방의 50개시등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처음으로 귀가훈련이 실시된 서울에서는 하오6시50분 훈련공습경보가 울리자 공공기관과 백화점, 시장, 술집, 다방등 접객업소가 모두 문을닫았고 시민들이 서둘러 귀가하느라 혼잡을 빚었다.

민방위대원등 특수근무자를 제외한 서울시민들은 하오9시까지 다니는 시내버스등 차량을이용, 모두 서둘러 집에돌아가 통금1시간전부터 거리가 한산했다.

또 지방50개시와 半月, 麗川공단과 주溪, 鐵武, 松汀, 倭館등6개취약 지구에서도 하오9시 50분부터 야간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됐다.

이날훈련시간을 미처 알지못한 일부시민들은 제때에귀가하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거나 여관을 찾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경찰관과 가벼운 시비를 벌이기도했다.

이날 서울 江南고속버스터미널은 하행 차량이 모두 통금시각인 하오10시이전에 서울 시내를빠져나갈수있어 평소보다 9시출발차량까지 승차권을 판매했는데 상행차량은 하오8시까지 도착할수있도록 고속버스 회사별로 배차시간을 조정했다.

또터미널측은 5일전부터 안내문 50장을 대합실등 구내에게시하고 30분마다 안내방송을했다.

한편 상행차량이 종전보다 2시간30분 앞당겨짐에 따라 터미널입출승객은 평소5만명선에서 4만8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南國 첫충돌 수단、리비아機 격추

11代 첫定期國會
21일召集 공고
豫算·教育稅등 議案 百50여件

丁來赫국회의장은 17일 상오10시 국회공고제3호를 통해 『헌법 제83條1項및 국회법제5條규정에 의해 제1백8회 정기국회를 오는21일 하오2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따라 제1백8회 정기국회는 21일부터 12월19일까지 90일간의 會期로 개최되며 9조5천8백72억원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비롯, 정부가낸 각종법안과 동의안, 각정당에서 제출할 案件을 처리한다.

11代국회開院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는 교육세新設법안 소득세및 法人稅등 稅法개정안을 비롯, 1백20여개의 法案과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民正黨은 이미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외에도 黨법령정비특위가 마련한 정당법, 언론기본법, 정치자금법등 정치·사회·노동·경제분야에 걸친 15개정도의 각종 관계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국회는 1백50건이상의 案件을 처리할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월5일 南悳祐국무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施政연설을 듣고 6일부터 民正·民韓·국민당의 대표연설에이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豫決委도 의석비율에따라 民正28 民韓15 국민4 議政同友會 3명씩 총50명으로 구성키로했다.

현재까지 각정당간에 합의된 초반운영일정은 다음과같다.

▲21일=개회식, 운영위▲22일=文公위원장선출, 豫決委구성, 會期결정▲23~24일=의원외교활동보고▲25~30일=常委別활동▲10월1~4일=休會▲5일=국무총리 시정연설, 국무총리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결의안처리▲6일=정당대표연설▲7~8일=정치·외교·안보 對정부 질문▲9~11일=休會▲12~13일=경제관계 對정부질문▲14~15일=사회관계對정부질문▲16~24일=상임위, 계결위 병행

각당代表연설 질문議題 3개로

民正·民韓·국민당등 3개정당은 17일 상·하오 두차례에 걸쳐 부총무회담을 열고 오는2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各黨의 대표연설을 듣는 한편 본회의 對정부질문議題를 ▲정치·외교·안보▲경제 ▲사회등 3개로 하기로 대...

軍事援助 안돼도 經協側面서 支援

社會漫評

"참말이노…실감이노…"

한국·이라크 總領事級修交

地平線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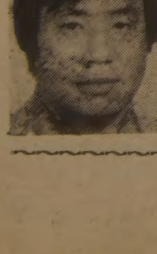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68
은 : 온스당 US 10.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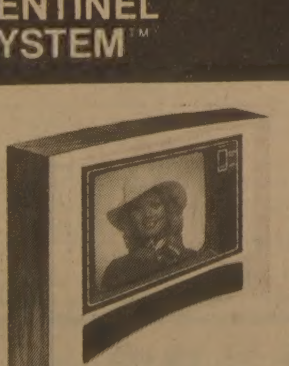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波、勞組에「流血사태」警告

黨政治局「救國委」설치提議에 강경聲明

"필요한 모든手段 동원 反體制 정치조직 不容"

【바르샤바16日AP·AFP=聯合】 폴란드共産黨정치국은 16일 自由勞組에대한 지금까지의 공격중 가장 강경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자유노조의 폴란드政治權力장악을 저지하기위해 필요한 모든수단을 동원할것』이라고 선언하고 자유노조와의 충돌로 인한流血사태도 불사할것임을 경고했다.

共産黨정치국은 이날 자유노조산하단체인『폴란드자위위원회』지도자 야체크·쿠론이 공산정부의 마비상태를 지적, 폴란드『구국위원회』설치를 촉구한뒤 수시간만에 전국TV방송을 통한성명에서『자유노조는 지난주의 제1차전국대회를 계기로 폴란드정치체제변혁을 공개목표로한 反체제정치조직설치작업에 착수했다』고 비난했다.

이성명은 자유노조가 노조설치를 가능케한 정부측과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정치적반대자로서 방향을 선회, 폴란드의 중대한 국가이익을 강타하고있으며 뿐만아니라 산하노동자들의 이익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성명은 또 자유노조의지나친 활동으로인한 현재의폴란드사태가 위협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있으며 반혁명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명은 따라서 폴란드정부가 자유노조에의한 정치권력장악을 저지하기위해 필요한 모든수단을 동원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고 현재의자유노조 활동방향은 곧 유혈사태를 초래케하는대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자유노조는 지난주 그다니스크에서 개최된 제1차전국대회를 통해 국민투표·자유선거및 노동개혁등을 제의하는 東歐공산국가들에 대해 자유노조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폴란드정부당국은 물론 소련을 비롯한 東歐 공산블록정부들의 공격을 불러일으켰었다.

정치국성명은 이어 자유노조가 전국대회에서 마련한계획들은 폴란드에서 설땅이없다고 말하고 자유노조회원들은 정부측과의 협정을 파기한 노조지도자들을 모두 축출하라고 촉구했다.

◇追放되는 이집트駐在 蘇大使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의 이집트정부로부터 출국명령을받은 카이로주재 蘇聯대사관의 외교관들이 16일 대사관에서 출국채비를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 【카이로16일AP電送=聯合】

波가톨릭主敎團 勞組側에촉구 "敎皇回勅 정치이용말길"

【바르샤바16日AFP=聯合】 폴란드가톨릭교회 주교단은 16일 폴란드자유노조(솔리다리노스크)에 대해 15일자 요한·바오로2세 敎皇의 回勅을 폴란드국내사태와 연관지어『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라』고 호소했다.

이주교단은 폴란드서부 그니에즈노에서 개최된 2일간의 회의를 끝낸후 지난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의 회칙은 자유노조나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다같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美·西獨관계 沮害우려

테러攻擊등 反美감정 激化로

【본17日UPI=聯合】 西獨人들은 요즈음 미국인들에게 냉혹한 테러공격과 격화일로에있는 反美감정이 美·西獨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테러분자들이 일부 西獨人들의 反美감정과 美정책에 대한 과도한 저항추세에 고무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그와같은 우려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만은 볼수없게됐다.

유럽주둔 美육군사령관암살기도사건후 본의 일간 게네랄·안차이거지는 사설을 통해 이문제에언급하면서 西獨내에서 정당화되고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우정을 지닌 친구가 아니라 범죄한 敵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이와같은 경향은 하이델베르크 테러사건(프레더릭·크로슨장군 암살기도사건)과 같은 테러행위로 길만이 [illegible]를 걷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맹목적인 狂信을 부채질할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지는 反美비판의 고조는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유혹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헬무트·슈미트수상도 최근 그가 이끌고있는 社民黨내 일부인사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西獨을 겨냥하고있는 로키트가 소련것이아니라 미국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실토했다.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의 西베를린 방문시 反美데모를 주도했던 장본인은 다름아닌 사민당청년기구 지도자 빌리·피에이크씨였는데 그는 미국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平和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있는것을 생각하고 있다.

美·蘇유럽軍縮회담 11월17일 開催전망

【브뤼셀16日外電=聯合】 미국과 소련은 유럽배치 핵미사일감축협상을 오는11월17일 제네바에서 개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식통들이 16일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美蘇간의유럽중배치거리미사일감축협상일정이 다음주유엔본부에서열리는 헤이그美국무장관과 그로미코 소련외상의 회담에서 합의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건 福祉예산삭감 항의 19일에 대규모 노동자示威

美 勞總서계획

【워싱턴17日AP=聯合】 AFL·CIO(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는 레이건 대통령의 복지예산삭감에 항의,오는 19일「노동자단합의 날」로 정하고 워싱턴에서 10만~2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AFL·CIO는 성명을 통해『우리는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 노동자정책에반대하고있음을 알리고싶다』면서 여론조사들이 레이건대통령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많은 저임금계층들은 그의 복지계획축소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다트 첫訪日 11월 中共방문길에

【東京16日UPI時事=聯合】 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이 中共을 방문하는길에 오는11월9일 사상처음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할것으로 16일 알려졌다.

「黃色의 비」유엔서 討議결정

【유엔17日UPI=聯合】 유엔25개국운영위원회는 17일 소련의 반대에도불구 캄보디아및 아프간에서의 화학무기사용문제를 총회에서 정식토의키로 결정했다.

이위원회는 이날 미소의 찬반주장을 들은다음 찬성18、반대5、기권2표로 이 문제를 제36회 (유엔) 총회 의제로 채택할것을 가결했다.

소련등 공산진영은 이날 소련이 아프간및 캄보디아에서 반정부게릴라들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미국측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다.

對蘇 禁輸강화촉구 美、도발능력抑制케

【워싱턴16日=聯合】 레이건美행정부는 16일 소련의모험주의를 저지하기위한 노력의일환으로 美商社및 동맹국들에 대해 美군수물자및 군사기술의 소련유출방지를위한 수출통제강화를 촉구했다.

레이건행정부는 또 미국이 가까운장래에는 北傀및 기타 敵性공산국에 대한 금수조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래시시차관은 이같은 美國의 새로운 무역정책이 소련의 전쟁도발능력을 억제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경찰에 끌려가는 反核데모대원 수백명의 데모대가 15일 다이아블케이언 핵발전소 정문앞에서 反核데모를 벌이다 경찰의 저지를받고 한데모대원이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다. 【샌루이스오비스포(美캘리포니아州)16日AP=聯合】

越·라오스·캄등 印支3國 브레즈네프와 秘密 회담

東南亞 새戰略마련

【홍콩17日AFP=聯合】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등 인도차이나 공산3국 지도자들이 이달초 크리미아에서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과 비밀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고 17일 발간된 홍콩의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리뷰誌는 모스크바와 하노이 및 프놈펜으로부터 나온 각국지도자들의 동태에관한 보도들을 종합,분석한결과 그같은 결론을 추출해냈다고 말했다.

赤軍派 또 날뛰고있다

잇단 爆彈·銃擊사건에 西方세계우려

◇西獨 테시이州 수사당국의 한수사관이 16일 美라인·마인공군기지로가는철로에 장치된 폭발물과 시한폭탄으로 가득찬 소화기들을 보여주고있다. 【비스바덴16일AP電送=聯合】

한동안 잠잠했던 西獨극좌 赤軍派게릴라 바더·마인호프團이 최근 유럽에서 번진 反美무드에 편승, 테러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서독경찰은 물론 전서방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월31일 람슈타인 미군사령부폭발사건을 깃점으로 1일 프랑크푸르트 지구 사회민주당사및 비스바덴미군장교클럽차폭파、15일 유럽주둔미군사령관 프레더릭·크로슨대장피습등연쇄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16일에는 프랑크푸르트공군기지에서 폭탄2개가 발견됐다.

赤軍派들은 이같은 테러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면서「美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창설자인 안드레아스·바더와 울리케·마인호프가 사망함으로써 죽은줄만알았던 赤軍派의 부활은 새로운 테러시대의 개막을예고하고 있다. 한 서독경찰간부는 올가을은「뜨거운 가을」이될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赤軍派단원1백10여명이 감옥에 있으며 수백명의 핵심분자들이 암약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反美무드에 편승 北傀·아랍등서 支援받아

서독당국은 赤軍派들이 70년대초 베트남전쟁으로 야기된 전세계적 反美·反戰무드를 등에업고 기승을 부렸던 경험으로보아 최근 레이건행정부가 중거리핵미사일 유럽배치,중성자탄생산결정등 對蘇강경노선을 취하면서 다시 일어난 유럽의 反美분위기가 赤軍派를 소생시키는 토양이되고 있음을우려하고있다.

서독赤軍派는 反美분위기를 이용, 대열을 정비하고 北傀공산당 국제테러배후세력지원하에 아랍극렬테러단체및 유럽의 지원단체와 연대관계를 맺어 조직적인 테러활동을 전개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새로 조직된 적군파의지도자는 살인5범으로 수배중인 前하이델베르크대학생크리스티안·클라르(29)、전간호원출신인 압델하이드·숄츠양(26)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아랍테러단체의 지원으로 중동에 피신해 있을것으로 서독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赤軍派단원들은 西獨과 이탈리아를 넘나들수 있는 프랑스와 스위스남부에 은신처를 두고 있으며 최근 北傀에 군사훈련및 정치적지원을 요청했었다고 서독검찰당국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南예멘과 이라크등 中東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무기를 입수하고 있다는것.

西獨赤軍派는 지난68년당시 학생신분으로 예술활동을 하던 바더와 동조자 3명이 한백화점에 방화한 혐의로 3년간의 실형선고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바더는美제국주의、서독자본주의및정부제도등을 분쇄하기위한「노동계급의 무장봉기」라는 이념을 내세웠다.

바더는 2년후 탈옥,지하로 잠적하여 좌익기자였던 마인호프양과 결혼하고 지하테러활동을 강화하여 자신들을 赤軍派라고 부르는 서방 최대의 바더·마인호프도시게릴라단체로 발전했다.

요르단에서 게릴라전법을 익힌 적군파들은 72년 5월 프랑크푸르트의 미육군사령부에 폭탄5개를 폭발시켜 중령1명을 살해하는등 駐서독미군요원및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적군파소탕작전을 편 서독당국은 바더와 마인호프등 일당을 검거했는데 마인호프양은 76년5월 감방안에서 목맨자살시체로 발견됐다.

바더가 옥중안에 있을때도 당시 검찰총장 지그프리트·부바크、은행가위르겐·본트、실업가 한스·마르틴·슐레이어등이 계속피살되었고 77년10월에는 서독여객기를 납치해 바더의 석방을 요구했다. 비행기 납치는 특공대에 의해 기습、실패로 돌아간직후 바더와 엔슬린、잔·라스페등 두목급단원들이 의문의 총살시체로 발견됐다.

바더가 죽은지 만4년이 흐른 지금에도 서독경제침체에 따른 젊은실업자들의 증대와 反美무드에 편승、赤軍派는 되살아나고있다. 【崔海雲기자】

悲慘한가난 감춘채 外觀만은 번지르르

AFP기자 北韓訪問記

큰길의 高層빌딩 뒷편엔 貧民들득실 外國人에 거짓 이미지위해 旅行제한 幼稚園에선 金日成 우상숭배 안간힘

【元山16日AFP=聯合】 인구23만의 元山은 얼핏보기에 꽤깨끗하고 안락한 도시라는 인상을 주었다. 北韓으로가는 대부분의 외국선박들이 새로 세워져 말끔한 20층짜리빌딩이 늘어서 장관을 이룬 해안끝에 정박하고 있으나 그 건물배후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지저분하게 있다.

또 元山의 해안은 호화로운 해안휴양지처럼 보이지만 수십미터만 내륙쪽으로 들어가보면 전혀판이한 세계가「안내여행」에서 잠시 살짝 이탈하여 빠져나온 외국방문객을 기다리고있다.

안내받은 여행자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어린이들과 창문안쪽에다 더러운 亞麻옷가지를 걸어 놓았을 불결한 가옥들사이의 좁은비포장골목을 볼수없도록 돼있다.

북한을 열흘동안 방문한본 특파원은 대부분의 도회지와 마을마다 빈민굴이 있으며생활조건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협동농장의 그것과는달리 결코 쾌적하지 않다는인상을 받았다.

오늘날 平壤의 중심가에는 콘크리트건물과 공원·공공건물이 늘어선 거리가 뻗어있다. 이와 곁들여 주민개개인들도 비교적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것들은北韓주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0일간의 北韓방문중 계속 기자를 안내해 온 통역은 잠시도 내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번은 마음내켜 하지않는그를 떼어 元山의 빈민가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 통역은 방금 기자가 본『나쁜것들은』 북한의 강냉이밭에 자란 몇포기의『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러나 내가 안내를 받아 가본平壤중심가의 아파트에 있는 한발전소노동자의 집은 보다 평수가넓었고 가구들도 開城이나 元山의 빈민촌에서는 볼수없는 것이긴했다.

韓씨성을 가진 이른바『모범가정』은 그들부부와 공무원인 아들및 외사인 며느리、사춘기에 들어선 딸、그리고 세살난 손녀등을구성원으로 하고있으며 이중성인 4명은 모두 당원이다.

이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는 침대방이 2개、그리고 커다란 주방이 있었으며 냉장고·목욕탕등을 갖춰놓고있었다.

기자는 平壤근처의 5백50가구로 이루어진 협동농장에 있는 탁아소겸 유치원도 안내를받아 방문했다. 여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인민의 낙원』이라는 사진책자에 실려있는『金日成의 아들딸이된 기쁨』을 큰소리로 노래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북한은『金日成의 지도덕분에 지상낙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뒤에는 본기자가 원산과 평양에서 목격한것처럼 번지르르한 외관사이로 노출된 빈곤한『제3의 세계』를 감추려는 정권당국의 안간힘이 역연했다.

나라의 빈곤을 시인한 毛澤東死後의 중공과 달리 金日成정권은 완벽한 이미지나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이라는 것은 술취한 사람이 저녁에는 平壤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나가고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산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볼때、그리고 開城에서 젊은남녀한쌍이 대낮이 아닌 어두컴컴한 길에서 손목을 잡고있는 것을 볼때 북한세계에서는 발견될수 없다는 시사를 받게된다. 【샤를르·알드완·드·네르시아記】

메아리

올림픽 誘致

「1988년 서울」은 올림픽의 해가 될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나고야(名古屋)가 그 명예를 차지할것인가… 2년 가까이 끈질기게 밀고당긴 올림픽유치의 줄다리기가 오는 30일 바덴바덴 IOC총회에서 결말이 난다.

IOC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미스터 올림픽」 또는「최후의 아마추어」로 불렸던 故브런디지옹이다. 그는 살아있는 化石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억척과 옹고집으로 순수한 올림픽정신을 지켰다.

20년간 IOC위원장으로재임중 험난한시대의 올림픽을 다섯차례나 주도했다. 격랑처럼 밀려오는 상업주의와 정치색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는「스포츠를 위한 스포츠가 있을뿐 치부나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스포츠란 있을수 없다」고 한치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대올림픽은 근대올림픽 창설정신과 멀어져 정치색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았다. 바덴바덴총회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것이 바로 이「정치색」이다. 분단의 비극이 정치적 마이너스로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과 나고야의 줄다리기엔 서로가 유리한면과 불리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77년8월 올림픽유치를 공식으로 선언하여 선두주자 행세를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시설과 제반여건이 오히려 나고야를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IOC조사단이 밝힌 그대로다.

현황은 팽팽하다. 나고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속을태운다. 서울개최의 負數는 동구권과 중립국이라는 變數다. 브런디지의 올림픽정신대로라면 IOC총회에서 우리가 꿀릴 까닭은 없다고 하겠다.

현대올림픽은 많은문제점을 제기한다. 갈수록규모가 비대해져 선뜻 개최의사를 밝히고 나서는나라가 적다. 종목을 줄이자는 의견이 강하면서도 오히려 늘어난다. IOC규정은 올림픽 선택종목중 15개이상을 택하라고 한다. 로스앤젤레스대회에선 전종목을 채택하면된다.

올림픽은 결국 국력싸움이고 국력과시의 광장이 되었다. 올림픽을 개최할수 있다는것은 국민적인 자부심을 북돋는다. 이번 IOC총회의 결과를 승부의 세계를보듯 할 필요는 없을줄안다. 다만 정치색이 배제된 올림픽의 참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海外토픽

上海市民들 뱀공포 ★사육장서 집단탈출

중공上海시의 완주지구 주민들은 이곳의 한 뱀사육장에서 뱀들이 대거 탈출,주택지구에 잠적하여 밤만되면 공포에 떨고있다고 해방군보에 실린 한 독자편지가 당국에 대책을 호소.

이 편지에 따르면 뱀사육장 관리자들의 소홀로 집단탈출한 뱀들이 민가에 침입, 주민들에게 공포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만도 80여마리의 뱀들이 침실등 곳곳에서 발견, 처치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뱀공포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특히 밤만되면 침실에 드는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는 것. 【北京=AP】

在所者가 知事출마 ★미시간州당국 고민

美미시간주 선거관리당국은 최근 재소자가 주지사선거에 출마할수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고민은 구스타브·잭슨이란 재소자가 당돌하게도 선거관리사무소에 주지사선거입후보등록을 해옴으로써 시작됐는데 사무소측은잭슨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기금모금위원회까지 정식결성하는등 선거법상의 하등의 하자도 보이지않고있어 더욱 고민중이다. 【랜싱(美미시간州)=UPI】

오늘의歷史 <18일>

- ▲최초의 철도 인천—노량진간 개설 (1899)
- ▲蘇, 국제연맹 가입 (1934)
- ▲中國, 항일구국동맹결성 (1935)
- ▲獨·蘇간에 폴란드분할협정 조인 (1939)
- ▲서울시, 특별시로 승격 (1949)
- ▲韓—日 航路허가 (1951)
- ▲蘇, 북극서 대기권 核實驗 (1962)
- ▲韓國·印尼 수교 (1973)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 7PM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 테프가 새로 들어왔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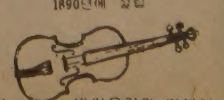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宗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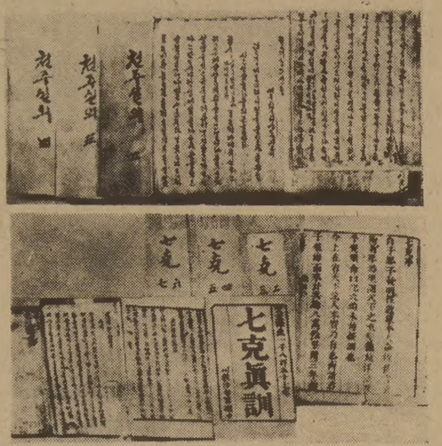
「한국사회와 가톨릭」

내일 西江大서 敎區設定 기념심포지엄

敎授·神父등 관계學者 20여명참가

傳統秩序 파괴·近代文化 보급등 社會변혁에의 肯·否定측면 討論

「한국사회와 가톨릭」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토론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19일 西江大에서 열린다. 천주교조선교구설정 15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琴章泰교수(成大·한국전통문화와 천주교사상) 金蒙恩신부(양화진성당·한국사회변동과 천주교) 韓庸熙교수(淑大·한국사회와 가톨릭정치윤리) 韓弘淳교수(外大·한국사회와 가톨릭경제윤리) 등이 주제발표를 하게되며, 관계학자 20여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天主實義」와 「七克」은 17세기초 우리나라에 처음소개돼 李睟光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됐으며 18세기후반에는 이미 한글판이나와 천주교 교리와 함께 한글을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 전통문화와 천주교 사상의 부딪침을 성찰한 琴章泰교수는 그 부딪침의 결과로 제기된문제를 ①창조주요 인격적主宰神으로서의 天主 ②死後세계로서의 천당과 지옥 ③祭祀의 거부와 전통사회의 위기의식등 3가지로 요약한다.

첫번째 「문제」의 경우 조선사회의 유교적관념속 ... 수 있다는 천주교의 신앙의식은 봉건질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것이었다. 그러나 天主의命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규범형식이 전통적 규범과 어긋나고있었기때문에 전통사회의 비난이 집중되었으며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국제적인 관심을 갖지못하게 되고 나아가 현세부정적인 신앙의식에 사로잡힌것은 그만큼 현실사회와의 타협을 어렵게 한것이었다. 세번째 「문제」는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운 珍山사건(1791년)에서 극적으로 표현됐다. 유교의례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제사거부는 ... 부정한다는 위기의식을 주게되었던것이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에 천주교가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분석한 金蒙恩신부는 ①평등사회의 촉진—班常타파 ②문화의 보편화—한글보급 ③인격의 발견—兒女子존중 ④민족운동에의 기여 ⑤근대문화의 보급등을 긍정적인 기능으로 꼽고 ...

[illegible]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⑩

民主議院시절

軍政諮問기관…兩巨頭가 議員선출

46年2月 發議式…秘書局長에 피선

1946년은 벽두부터 정치熱氣로 뜨거웠다. 反託운동은 좌익을 제외한 전민족의 호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중장은 左右合作을 통해 신탁통치를 시도하는 美·蘇共委에 협력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해왔다.

李承晩박사는 『정치를 모르는 인물이 남의 나라의 前途를 망치려한다』면서 개탄했다. ...

[illegible]

◇1946년 2월14일 민족진영을 망라한 民主議院이 軍政廳(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發議式을 했다. 탁자정면 의장석에 李承晩박사, 그 좌우에 金九선생, 金奎植박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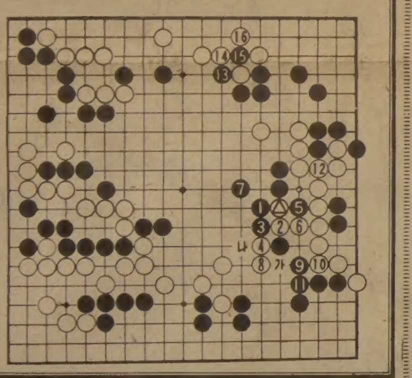
[illegible]

【李忠雨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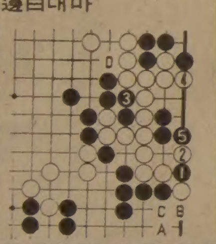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6譜 101~116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徐奉洙
黑(6段) 姜哲民



未生然한 右邊白대마



[illegible]

【一凡】

◇1년의 收穫을거두는 바쁜손길 1년내 땀흘려 가꾼곡식 을거둬 들이기에 농촌은 눈코뜰새가 없다. 벼를 베어 탈곡기에 이삭을 털면서 이들 농가의 夫婦는 마음속으로 1年의 家計를 셈해본다. 秋穀수매가는 어떻게될지, 아이들 學費는 얼마나 오를지…. 夫婦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은것은 마음속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남진양군진성면중촌리에서 韓隆기자찍음】

有害생선묵 量産

대장균 득실…業主들拘束

서울地檢

서울지검 北部지청 형사2부(李元泰부장검사·金四一검사)는 17일 인체에 유해한 생선묵을 제조, 판매해온 유미식품 대표 許鉉(41·서울城東區 聖水洞2街 517의8)를로버식품 대표 尹榮二씨(36·서울 東大門區 淸凉里洞176의1)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일식품 대표 崔俊益 ... [illegible]

블랙박스등 檢査

韓·美·比합동조사 事故KAL機

[illegible]

오늘 좋이 외식生 〈204〉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불다⑤

[illegible]

소식

예長 총회센터起工

예장합동측 총회센터(회관) 기공예배가 8일상오11시 새로 매입한 서울 江南區 三成洞 부지에서 거행된다. 총회센터는 5백60여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연건평 2천2백27평 규모의 건물을 짓게된다.

기독교 信徒聯總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제9회 정기총회및 세미나가 19일 하오 5시30분부터 10시까지 鍾路YMCA 6층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李章植박사가 「80년대 평신도 운동의 선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福者聖月 기도회등 切頭山서 내일부터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을 기념하는 복자성월 행사가 절두산순교자기념관 주최로 펼쳐진다. 순교자 시성시복을 위한 성령가족 특별기도회가 19일하오2시 절두산 金大建신부 동상앞에서 열리며 교회사자료전시회가 20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상오9시~하오6시) 개최 한다. 자료전시회 개회미사는 20일상오11시, 순교자현양미사는 26일 하오 2시에 각각 올려진다.

22일 本寺주지會議

불교曹溪宗 본사주지회의가 22일상오10시 소집된다. 이날회의는 사찰관람료 가운데 20%를 총무원에 납부하는 문제를 마무리짓기위한것인데 이돈은 연간 4억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一鵬스님 禪畵展示

한국불교아카데미(선학도량) 건립기금조성을 위한 一鵬 徐京保스님의 선필선화전시회가23~28일까지 6일동안 롯데화랑에서 개최된다.개막식및 다과시간은 23일 하오 6시10분.

「長老名鑑」을 發刊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에서 長老名鑑을 발간했다. 크리스천라이프사가 제작한 이 명감에는 1천8백여장로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주소록과함께 수록돼있다.

創造科學會 세미나

한국창조과학회는 9월 학술세미나를 19일하오2시 과학원 101호 강의실에서 갖는다. 연사는 W·L존슨박사(노아의방주)와 김경렬교수(창조주와 자연과학)등.

僧伽大學 문학특강

불교 中央僧伽대학은 제3회 토요특강을 19일 상오10시 서울城北區安岩洞 동대학 강당에서 마련한다. 특강 주제는 「現代佛敎와 文學」. 시인 金丘庸씨가 강연하고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다. ☎4077.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기간 : 9월21일부터 10월3일까지

Family Size Choco Bar	24/99¢	15.09
Reg. Size Choco Bar	36/40¢	9.95
Caramilk Thick Bar	36/55¢	13.75
Leaf Ball of Fire Gum	48/ 5¢	1.45
Navy Corn Gum	200/ 3¢	3.89
Dad's Apple and Oatneal Cookie	12/30¢	2.09
Sun Flower Sees with Shell	25/25¢	3.95
Life Savers Candy	25/30¢	4.45
Y & S Twizzlers	60/ 5¢	1.95
Big Leaugue Chew	12/59¢	4.65
Raiders of the lost Ark	36/25¢	6.14
Kisko Drinks	24/30¢	4.09
Soft Granola Bars	40/40¢	7.33

이 기간동안 핼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10월 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男子핸드볼, 中共격과

세계핸드볼B組예선 장신壁 속공으로 깨뜨려

【東京支社】제10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내년2월·西獨) 아시아지역 B조 예선전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中共을 26-23으로 꺾고서 전을 장식했다. 한국은 77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핸드볼선수권대회서 처음 中共을 꺾은후 다시 中共을 제압했다. 16일東京 고마자와 체육관서 열린 첫날 1차전서 한국은 GK林圭夏의선방과 姜泰求, 崔太燮, 林英喆, 李相孝의 활약으로 전반을14-11로 리드한후 후반 中共의 맹렬한 추격을 속공으로 따돌렸다. 평균신장이 1m87로 한국의 평균신장보다 7cm나 더 큰 中共은 장신을 활용, 사이드 숏으로 돌파구를 열어 제정을 따냈으나 한국은 4-2로 전세를 뒤집었다. 中共도 중앙돌파 공격으로 따라붙어 4-4 타이를 만든후 9-7로 앞섰다. 사이드숏이 막히고 중앙공격이 여의치않아 고전한 한국은 오픈공격으로 찬스를잡아 崔太燮과 林英喆의 숏으로 9-9로 따라붙고 林의 연속 4득점에 힘입어 13-10으로 점차를 벌린후 전반을 14-11로 마쳤다. 후반들어 한국은 姜泰求崔太燮의 숏이 계속호조를보여 18-12, 이대전서 가장많은 점수차를 벌렸다. 신장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지못한 中共은 후반 한국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타 맹렬한 반격을 벌였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26-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번 예선전에는 한국 日本 中共등 3개국이 출전했다.

◇1차전

한 국 26 (12-14, 12-11) 23 중 공

오늘 日과 本選진출權 다툼

韓國, 泰國과 비겨

메르데카축구 예선탈락

【쿠알라룸푸르16日=聯合】한국의 花郞은 16일 이곳 육군구장서 벌어진 제25회메르데카杯쟁탈 국제축구대회 예선 B조최종경기에서 泰國과 1-1무승부를기록, 1승2무1패로 예선서 탈락하고말았다.

이날 이라크는 싱가포르에 4-0으로 이겨 2승1무1패의 기록으로 B조 2위가 확정되어 4강전에 올랐다. 이로써 18일 열리는 준결승전 대전은 日本-이라크, 브라질-印度전으로 짜여졌다.

이날경기서 花郞은 전반24분 泰國의역습을받아 1골을 허용, 1-0으로 리드당했으나 후반13분께 FW黃石根이 邊炳柱가 센터링한 볼을 泰國문전서 헤딩숏, 동점을 만들었다.

◇예선B조 최종전

한 국 1 (0-1, 1-0) 1 태 국
이라크 4-0 싱가포르

▲총순위=①브라질 4승 ②이라크 2승1무1패 ③한국 1승2무1패 ④태국 1승1무2패 ⑤싱가포르 4패

泰安女高, 감격의 覇權

추계중고배구

中央에 3-0

江陵女中도 富平女꺾고優勝

泰安女商이 팀창단5년만에 처음 전국대회여고부패권을 차지했다.

泰安女商은 17일 장충체육관에서 막을내린 81추계전국중·고배구대회 최종일경기에서 朴喜玉·朴美香·원순잡이 李明子등의 활약에힘입어 中央女高를3-0으로물리치고 3연승을 기록, 여고부우승을 차지했으며 江陵女高는 仁川信明女高를 3-1로 꺾고2승1패로 준우승을 안았다.

여중부서는 164cm의 鄭明姬가 재치있는 강연공을퍼붓는데 힘입어 江陵女中이 富平女中을 15-9, 15-11로 꺾고 창단6년만에 처음전국대회서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여고부리그

강릉여고 3 (15-12, 8-15, 15-4, 15-10) 1 신명여고
태안여상 3 (15-8, 15-13, 15-7) 0 중앙여고

▲총순위=①태안3승 ②강릉2승1패 ③중앙1승2패 ④신명3패

▲여중1부결승

강 릉 2-0 부 평

▲동2부

서 문 2-0 은 혜

金煥珍도전차확정

10월11일로페스와

【상환(웰트리코)17日=UPI聯合】WBA(세계권투협회) 챔피언 관리위원장인 루이스·바티스타·살라스씨(상환부시장)는 17일WBA주니어플라이급 새챔피언인 金煥珍과 도전자 알론소·로페스(동급3위)가 오는 10월11일 大田서 타이틀매치를 벌이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온男女, 決勝진출

문교부장관旗 탁구

【大田=李廷元기자】제14회 문교부장관기쟁탈 학생탁구대회서 경기 시온高가 남·여고부 단체전 결승에 진출, 大邱心印高와 서울 明知女高와 패권을 가리게됐다.

아세안 大學스포츠

11월15일 泰서개최

【쿠알라룸푸르16日AP=聯合】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은 첫 아세안대학스포츠대회를 오는11월15~22일 타이의 치엥마이에서 개최할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축구·수영·테니스·트랙 및 필드등 4개종목으로된 아세안대학생스포츠대회에는 각회원국이 1백50명이내로 선수를 파견하도록 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浦鐵 단독先頭나서

朴武洪 결승골 韓一銀꺾어

실업축구 후기리그

浦鐵은 17일 효창구장서 벌어진 실업축구 후기 리그 12일째 경기에서 후반 19분 朴武洪의 결승골로 韓一銀을 1-0으로 물리쳐 6승4무를 기록, 단독선두를 고수, 우승고지에 한발 다가섰다.

16승점을 올린 浦鐵은 앞으로 서울信託銀行, 住宅銀行과의 두게임을 남겨놓고 있으며 忠義와 海軍 國民銀行등 3개팀이 浦鐵을 바짝 추격하고있다.

이날 星武는 鐵道庁과 맞서 경기후반38분 任容常의 숏으로 결승점을 올려 1-0으로 신승, 3승1무5패를 기록했다.

◇제12일전적

성 무 1 (0-0, 1-0) 0 철도청
(3승1무5패) (2무9패)
포항제철 1 (0-0, 1-0) 0 한일은행
(6승4무) (4승2무4패)

불가리아의 루세프 75kg級上서 世界新

【파리(프랑스)16日AP=聯合】불가리아의 얀코·루세프가 16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75kg급 용상에서 2백6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기록은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역시 불가리아의 아젠·즐라테프가 수립한 2백5.5kg이었다.

귀중한 獻血…낭비 심하다

白血球·血小板·혈장등 成分 분류해야

원액輸血보다 效用度 2배

남은피는返還…再헌혈促進

분류기 비싸 서울시내綜合병원 3곳뿐

서울大 千여병·세브란스 6百여병절약

귀중한 혈액이 낭비되고있다. 다른나라사람들에 비해 헌혈하기를 유난히 꺼려하는 우리나라 국민성때문에 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형편에 힘들여채취한 혈액마저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등으로 분류해 쓰지않고 어느경우든 원액그대로 수혈해버리고 마는 실정인 것이다. 혈액을 성분별로 분류, 필요한 성분만을 수혈할경우 피의 효용도를 2배이상 높일 수있고 수혈하고 남은성분을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줄수도 있으나, 이같은「성분수혈」이 실시되지 않고 또 실시할 생각도 하지않고있어 적절한 대응책이 기다려진다.

◇성분수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혈액은 성분수혈되는경우 같은양으로 2배이상의 효과를 낼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4개소의 종합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이성분수혈이 실시되고 있을뿐이다. 성분수혈을위한 분류 기계인「헤모네틱스30」이 비치된 종합병원은 현재 서울大병원 연세大병원 순천향병원등 3곳뿐인데 그나마도 소요되는 피의전량을 분류할 수는 없는형편이고 다른 종합병원 몇개소에 원심분리기가 있기는하나 아직은 실험用기구에 불과하다는것.

「헤모네틱스30」으로 피를 분류해서 사용할경우 혈액을 각성분별로 나누어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수혈해주어 혈액의 효용도를 2배이상으로 높일수있고, 나머지성분을 헌혈자에게반환, 헌혈자를 보호하여 재헌혈을 촉진할수있는 2종의 잇점이 따른다.

실제로 이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大병원의경우 1개월에 평균 3천여병 (3백20cc짜리)의 혈액이 소요되고 있으나 성분수혈에따라 매달 1천여병의 혈액이 절약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세大병원의 경우도 1개월에 소요되는 혈액이 1천8백여병에 달하지만 그중 6백여병은 성분수혈로서 충당되고있다.

서울大병원 혈액원측은 이 성분수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병원직원, 가족등 3천여명의 혈액형과 채혈가능여부를 평상시에 파악, 기록해두고 긴급필요시에는 채혈하는 헌혈예약제를 실시하고있다.

서울大병원혈액원 宋賢顯주임기사는『이 헌혈예약제는 성분수혈제도와 접부돼야만 성과를 거둘수있다. 헌혈자에게 수혈후 남은 나머지 성분을 되돌려줄수 있기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잇점을 가지고있는 성분수혈제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지않는 이유는「헤모네틱스30」이 1대에 3만달러정도의 高價여서 병원측이 투자를 꺼리고있고, 또 실제로 이기계를 다루어야하는 혈액원 기사들이 기계조작술이 미숙해 기계자체를 꺼리고있는 때문등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있다.

중앙혈액원장 趙得龍씨는『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실시중인 이제도에 대한 계몽을 대한적십자사가 매년펴오고있으나 이제도가 잘보급되지않는것은 성분수혈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험미숙등 때문』인것으로 분석하고『혈액사업의 중요성으로볼때 병원측은 성분수혈제도도입에 따른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관계종사자들도 새로운기술에 속히 적응해나가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혈액수요는 매년 15%씩 증가되어 지난해 50만명에서 금년도에는 6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헌혈인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鄭在龍기자】

前議員 金寅起씨

宣告유예判決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및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新民黨 국회의원 金寅起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천3백만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긴급조치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金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증여세포탈혐의부분은 정당하게 상속권을 행사한점이 인정되기때문에 무죄이며 긴급조치9호위반부분은 긴급조치가 해제됐기때문에 면소됐다』고 판시했다.

브레이크 破裂버스 횡단步道 덮쳐

8명死傷

【光州=聯合】17일 상오8시께 光州市東區大仁洞 시외버스공용터미널앞 光南路 횡단보도에서 光州신여객소속 전남5아8626호 시외버스(운전사 鄭椿鎬·23)가 길을 건너던 행인 8명을 덮쳐 韓桂淑씨(54·麗水市鍾和洞995)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朴成洙씨(23·光州市北區龍鳳洞31)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全南大의 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있으나 사망자가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승객 25명을 태우고 光州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출발, 光山郡 林谷으로 가던 사고버스가 사고지점에서 교통순경의 정지신호를받았으나 브레이크파열로 멈추지못하고 횡단보도를덮쳐 일어났는데 사고버스는 5m앞에 서있던 光州 인성고교 스쿨버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망자 ▲韓桂淑 ▲金京田(25·潭陽郡水北面豊水里797) ▲신원미상의 30대남자

保險料가로채

教保浦項지부장 40여명분

【浦項=聯合】대한교육보험浦項지부장 李곤이씨(42·蔚山市鶴洞 한고아파트502호)가 40여명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3천여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지않고 가로채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79년 5월부터 81년 8월27일사이 대한교육보험 蔚山지부장으로 있으면서 金대곤씨(48·경남蔚州郡 江東面)등 40여명을 평생교육보험, 장기국민복지보험등에 가입시킨후 이들로부터 매달받은 3만3천8백50원을비롯, 도합3천여만원과 보험료카드40장을 갖고 도주했다.

李씨는 지난1일자로 蔚山지부장에서 浦項지부장으로 발령받고 이같은 사실이 탄로날까 무서워 부임치않고도주했다는것.

福夫人 둘令狀

【安養=聯合】경기도 安養경찰서는 16일 무허건물 철거민등 타인명의로 아파트분양 추첨에 당첨된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려던 宋상근씨(46·女·서울江西區禾谷洞225의34)와 金경자씨(42·서울江西區內鉢山洞460의8)등 2명의 복부인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宋여인은 무주택자인 신봉여씨(63·서울城北區鍾岩洞180)및 현진씨(46·서울城北區鍾岩洞105의144)의 명의로 지난7일 실시된 경기도果川지구 주공2차아파트 13평형 분양을 위한 추첨에서 아파트 2동의 입주권을 따낸후 1동당 8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아달라고 현지 대원부동산에 전매의뢰했다는것.

서울大 1勝

전국 우수대학배구

제9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및 전국우수대학 배구연맹전이 서울大, 成均館大, 西江大, 京畿大, 全北大등 5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17일 西江大체육관서 열려 첫날경기서 서울大가 全北大를 3-0으로 누르고 1승을 기록했다.

23일까지 풀리그로 펼쳐질 이번 대회는 이틀째 경기부터 장충체육관으로 장소를옮겨 벌어진다.

◇첫날 전적

서울대 3 (15-12, 15-4, 15-4) 0 전북대

流星의 賦 <18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明暗⑥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 계남은 아침 밥상을 받는 자리에서 숙탐에게 말했다.

『어젯 밤에도 말했거니와 나는 내 평생에 지킬 것을 얻었소. 그건 당신이요. 당신 앞에 지킬 어머니가 있읍니다만 어머니에겐 아버지가 있었소. 내 어머니는 노비나 다름 없이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계시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겠다고 했소. 아버지 역시 사정이야 어쨌건 내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라고 했소. 그러고 보니 나는 천하의 유일자(唯一者)요. 의탁할 곳 없는 고독자(孤獨者)였소. 그런처지에 당신을 만났소. 내가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사람을 만났단 말이오』

숙탐은 고개를 떨구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더니 붓을 들었다.

『감지득지(感之得之) 무여한(無餘恨) 상봉즉시(相逢即時) 인생료(人生了)』

그리고는 보일까 말까 웃음을 띠곤

『소녀부지백년비(少女不只百年婢)』

라고 썼다.

아침 밥상을 물리고 계남이

『나는 오늘 우리의 일가인 성민대감을 만날까하오』

하고 일어섰다.

숙탐이 바쁘게

『유청무언(唯聽無言)』

이라고 쓴 글을 들고 따라 일어섰다. 듣기만 하고 말하진 말라는 뜻이었다.

그 길로 계남이 회현동을 가서 하석과 동도하여 자방에 있는 홍성민의 집을 찾아갔다.

율곡과 친한 사인데도 계남과 성민은 초대면이었다. 서로 같은 대수(代數)임을 확인하고 성민이말했다.

『내가 자네에겐 형으로 되는구나』

『형님』

하고 계남이 절구(絶句)했다.

성민이 율곡의 유언을 전하고, 그 때문에 편지를 썼노라고 하곤

『자네가 좀 일찍 나를 찾아야 하는 건데』

하고 한숨을 쉬었다.

『만나 뵌 것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왜 한숨을 쉬십니까』

계남이 돈수하고 아뢨다.

『작년에만 자넬 만났더라도 내가 천거할 자리가 있었더니라. 그런데 지금은 여의치 않구나』

『제 걱정일랑 마시옵소서. 저는 벼슬이나 자리를 원치 않사옵니다』

『자네의 기개는 안다. 그러나 부재기위(不在基位)이면 불위소능(不爲所能)이니라. 너가 아까워서하는 말이다』

『한데 형님의 소처는 어떠 하옵니까』

『나의 소처는 부운(浮雲)이다. 바람따라 갈 작정이다』

『동인들의 행패가 그처럼 심하옵니까』

『동인?』

하고 성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곤한다는말이

『동인, 서인하고 들먹이는 것만도 아니꼽다. 동인은 부동인(不東人)이고 서인은 부서인(不西人)이다. 사람들이 저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소치이지 별달리 거론할게 못되느니라』

『그러나 형님, 돼 먹지 못한 놈을 말해 주사이다. 제게 힘이 있다고 하는것이 무슨 소용 있으리까. 한이나 풀고 죽고자 하옵니다』

홍성민은 그렇게 말하는 계남을 입을 다문채 바라보고만 있었다.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온타리오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재배한다

온타리오주는 각종 신선하고 가공된 식품을 산출, 당신은 당신가족이 즐기는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타리오주에서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장을 보는 곳에서「Foodland Ontario」마크를 찾아보십시요. 그리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질의 음식물로 당신가족의 식탁을 만드십시요.

좋은 농작물이 자라는
온타리오 주

FOODLAND ONTARIO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Lorne Henderson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주민을 돕기위한 일하는
온타리오 정부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 HERITAGE LANGUAGE PROGRAM
에 의한 웨스톤 Y어린이학교
학생모집

등 록: 9월23일(수) 오후4시반~7시
곳: DAYSTROM PUBLIC SCHOOL
(25 Daystrom Dr.)
(휜치와 웨스톤 로드에서 서남방)
대 상: 유치원~8학년 어린이
(9학년및 메트로외 거주자는 25달러 수업료)
수업과목: 한글, 한국노래, 태권도, 율동등
교 사: 최춘자, 이영희, 김정숙, 오정숙
문 의: YMCA(536-1166) MR. 김
회 비: 무 료